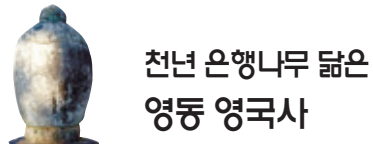


우왕좌왕 하는 시대 ‘정법’으로 갈 길 밝히다



천년 은행나무 많은 영동 영국사

-5월 갑신일에 선경전에서 5일간 소제도량을 개설했다.
 -6월 무오일에 왕이 대관전에서 보살계를 받았다.
 -7월 신사일에 대관전에서 3일간 소제도량을 개설했다.
 -9월 계미일에 승려 덕소(德素)를 왕사로 삼았다.
 -10월 갑진일에 선경전에서 백고좌를 베풀고 (인왕경)을 강론했다. 을사일에 3만 명에게 반송했다. 임자일 밤에 궁궐에 화재가 발생하여 여러 절의 승려 및 부위군(府衛軍)들이 불을 끄려고 궁궐로 왔다. 정중부, 이준의 등이 숙직하고 있었는데, 이의방 형제가 변이 있을까 두려워 귀 안으로 달려 들어가 자성문을 닫아걸고 불 끄러 온 자들을 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궁전이 모두 불탔다. 왕은 산호정으로 나가 통곡했다.

(조선불교통사)(이능화, 동국대학교출판부)에 정리된 고려 제19대 명종(明宗) 재위 원년(1171, 기록에 따라 이해를 명종 2년이라고도 하고 원년으로도 하는데, 명종은 1170년 9월에 즉위함)의 불교 관련 사건들입니다. 지금(2011년)으로부터 840년 전, 고려가 건국되고 252년 뒤의 일입니다. 누구보다 불심이 강했던 고려태조는 불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승려들을 위해 각종 우대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고려왕조 초기부터 건국의 주축이었던 무신과 불교에 대한 견제 내지는 회의적 시각이 존재했고, 이로 인해 나라가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필두로 백성들의 살림살이까지 총체적으로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심이 혼란하고 정치가 난맥상을 이루게 됩니다. 태평성대란, 개인으로부터 가정, 사회 정치 조직, 집권층에 이르기까지 힘의 균형이 완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총체적인 힘의 균형이 평화의 시대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고려왕조 474년 역사에서 그 균형을 다스리기도 하고 거스르기도 하는 힘의 주축에는 불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태조 이래 불교에 대한 각종 특혜가 불교를 통치세력 내지는 통치의 조력세력으로 변질되게 했던 것입니다.



영동 영국사 배경

각설하고, 서두에 든 사건에 다시 주목해 봅니다. 명종은 1170년 8월에 발발한 '정중부의 난'에 의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형인 제18대 왕 의종(毅宗)은 재위 24년 동안 술과 파티에 젖어 지내다가 반기를 든 신군부에 의해 폐위돼 거제도도 귀양 갔습니다. 명종은 열팔살에 왕이 된 셈입니다. 군부와 함께 쿠데타를 모의 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왕통을 이를 적인 자로 지목되어 오른 왕좌. 그 첫 해에 명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5월에 소제도량을 열어 국민민안을 빌고 6월에 보살계를 받고 7월에 다시 소제도량을 열었습니다. 소제 도량은 왕이 주축이 되어 가뭄이나 흉수 등 천재지변을 면하고 풍년과 태평성대를 비는 의식입니다. 고려왕조 474년 동안 130여 차례 열렸습니다. 나라는 신군부가 위락파락 하고 왕은 부처님께 무사안녕을 비는 일에 5일, 3일씩 매달렸습니다.

9월에는 덕소 스님을 왕사로 모셨는데, 그 앞의 왕들도 즉위 원년에 왕사를 모시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왕이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가를 잘 알려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궁에 화재가 났는데 신군부는 불 끄러 달려오는 승려들과 군인, 민간인들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궁궐이 타건 말건 방금 정권을 잡은 자신들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목도하고 왕은 그저 통곡할 뿐입니다. '갈의 시대'를 증언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중부의 난은 무신들을 멸시하는 문신들과 국가 권력 시스템의 문제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거사를 성공한 신군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세력이

무신정권의 첫 왕조 명종의 왕사로 추대돼 의천-교옹으로 전해진 고려 천태종 맥 이어

아니라 새로운 집권 착취세력으로 둔갑했습니다. 이로써 향후 100여 년 간 지속된 군사정치의 막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불교계 승려들도 밀착되어 있습니다. 거사 이후 신군부 내의 암투가 마침내 피의 숙청으로 번졌는데, 그 정중부의 아들 균이 아버지의 거사 동지인 이의방 형제를 암살하는데 동참이라는 승려가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서서 고려시대 불교를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의 본래 가르침, 종교의 사회적 기능과 책무, 수행자의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지위, 종교인의 자세, 종교와 문화 등 수많은 키워드를 동원해 고려시대의 불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특히 속에 돌아난 독백이 무성하고, 그 속에서 본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는 외젠 또한 성성합니다. 불교 혹은 종교가 권력과 밀착되면 어떻게 타락하는가? 정법을 외면하고 구복과 기복에 매달리면 어떤 혼란을 불러 오는가? 고려시대의 불교 역사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때를 답아 잊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 중기로 접어드는 의종과 명종 때의 사회상에



영국사 부도발 전경. 부도 뒤로 영국사 원각국사 탐비가 자리하고 있다. 원각국사는 이 탐비로 인해 가장 분명히 행적이 드러난 고승으로 꼽힌다.

비취진 불교계의 입지는 한 마디로 '타락상'입니다. 무능한 왕실이, 격변의 정치권이, 대륙에서 밀려드는 문물에 흥청대는 경제가 불교계를 타락시켰을까요? 그러한 혼란상을 바르게 이끌지 못한 불교계 역시 무능과 격변의 중심에 있었고 시류를 따라 흥청거렸던 것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를 살다간 수행자, 명종의 왕사였던 원각국사(圓覺國師; 1107~1174)는 어떻게 시대의 균형을 맞췄을까요?

충북 영동 영국사. 천년 은행나무가 버티고 선 고찰 영국사 왼쪽 언덕에 원각국사의 탐비가 서 있습니다. 반은 깨져 나간 비석이지만, 몸돌을 받치고 있는 귀부의 우람한 형상은 원각국사의 당당한 인품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옆에 놓인 이수 역시 두툼한 조각으로 네 귀에 용두를 장식하고 중앙에 '원각국사 탐비'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부도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탐비로 인해 원각국사는 영국사의 역사 속에 가장 분명하게 행적이 드러난 고승으로 꼽히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중,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 성난 파도가 산과 같이 솟았다. 배에 탄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움에 싸여 우왕좌왕 했다. 이때 스님께서 태연히 '보문품'을 독송하기 시작하니, 순식간에 풍량이 저절로 가라앉아 무사히 건너 갔다."

원각국사 인품 반영한 듯 당당한 탐비 불법으로 난세 불균형 치유했던 선지식

"갑신년(1164, 의종18년) 여름 날씨가 오래 가물었으므로 의종이 문명궁에서 강설법회를 열고 스님을 초빙하여 강주로 추대했다. 강경을 시작하자마자 큰 비가 쏟아져 전야(田野)와 식수가 완전히 해결하여 그 해에 크게 풍년이 들었다."

비문에 기록된 원각국사의 행적 일부입니다. 난세의 중생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균형이 맞지 않아 평온할 수 없는 때에 고요히 '보문품'을 읽을 수 있다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인도하여 마음의 균형을 잡아 주는 것이 바로 시대의 큰 스승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 군사정권의 시작과 왕권의 약화에 따른 갖은 혼란상에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고 힘없는 왕은 국사의 인품과 도덕에 기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원각국사는 고요히 시대를 응시하면서 부처님의 법으로 난세의 불균형을 치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각국사는 고려 천태종의 창시자인 대각국사의 법의 직계 제자 교옹(教雄) 스님에게 출가했고, 법을 배워 득도했습니다. 스승 교옹 스님은 항상 "나의 종지를 중흥할 자는 반드시 이 사미일 것"

이라며 제자의 범기(法器)를 은근히 드러내 보였다고 합니다. 스승의 눈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려 천태종의 법맥은 의천-교옹-덕소로 이어지게 되었고, 의천이 머물며 수행하던 영국사는 고려 천태종의 본산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천태산이라는 이름 역시 이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천태산(714m) 정상에 서면 사방의 크고 작은 산들이 언뜻을 방불케 합니다. 높고 낮은 산, 넓게 혹은 좁게 이루어진 들과 계곡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모두가 하나의 장엄도량이니 굳이 입으로 (법화경)을 읽지 않아도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법화삼매인 겁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원구형 부도와 석조형 부도를 뒤로 두고, 전각 안에 서 있는 원각국사의 비는 천년 은행나무와 더불어 천태산의 보물고고 영국사의 정수(精髓) 하였습니다. 은행나무의 푸른 기상이 세월을 초월해 있다면 원각국사의 비의 침묵은 공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두두물물이 불성이요, 보이는 모두가 부처의 현현이니 은행나무도 국사의 비도 시공을 떠난 도량에 있는 것입니다.

글·사진=임연태(시인·본지는설위원) mian1@hanmail.net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2011년형 여름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제 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외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당중 위기 식음 17%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쁜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원출판사 | 검색용 지움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외나무 진액 참외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외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외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꽃에 대한 술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고로 꽃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외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